

## 三一절有感

3·1절에 현충사를 찾았다. 봄눈이 내리는 현충사의 주변은 몹시 고요했다. 번거로운 도시의 명절 기분보다 한결 수수한 맛을 알게 된 것이다. 서울에서는 가정마다 국기를 달지않았다고 해서 신문 방송에서 말이 많다.

확실히 요즘 도시 생활에서는 3·1절과 같은 명절에 의식이나 행사를 치루는데 둔감해진 것이다. 늘 같은 형식의 행사를 치루고 틀에 박힌 메시지를 발표하는데 별로 흥미를 느낄 수가 없어진 것 같다.

그렇다면 3·1 정신은 온전히 우리 의식 구조에서 살아졌다고 할 것인가? 그렇게 단순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적어도 53년 전의 한국과 국제 정세와 오늘의 국제 정세는 판이하지마는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 평화, 정의는 여전히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별로 다른바 없다. 다만 달라졌다면 불의와 압박에 대한 항거가 소박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국민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외침에 대한 경계심, 국내적인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살아있다고 본다. 이를테면 3·1 정신이 50 성상의 세월을 지내 오는 가운데 더 의식화 되고 말았다는 말이다. 좀더 내면화되어진 항거 정신이 우리 생활 속에 살아있다고 믿는다.

3·1 운동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거족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이었다. 초 종파적인 대화도 가능했고 운동도 가능했다. 이 말을 바꾸어 풀이한다면 한국적인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국가 운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민주화, 자유화 그리고 협동의 자아 의식 운동

이라는 말이다.

에큐메니칼이란 말을 너무 신비스럽게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질서요 창조적인 작업이다. 비민주적인 세력, 자유를 유린하는 세력 그리고 행동을 가로막는 독선을 앞에 놓고 싸우는 일이다. 이것이 현대적인 상황 속에서 가져야 할 삼일 정신이 아닐까?

늑손이 증공을 다녀와서 이렇듯 저렇듯 말이 많다. 너무 기대할 것은 없으니 별로 만족이나 실망을 할 것도 없다. 우리는 너무 남의 눈치만 보고 사는 생활을 벗어나야만 하겠다. 좀 더 기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사는 태도가 어렵다. 우리가 삼일절에 국기를 달지 않는 것을 탓하는 것도 좋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은 과연 오늘 이 순간에도 비민주, 비자유, 비협동의 힘이나 세력에 대해서 <아니오>하고 대담하게 증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는 확실히 오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해 있다. 제 2의 독립선언문이 나와야겠다. 그것은 일제의 압박에 항거하는 선언문이 아니라, 비민주, 비자유, 비협동에서의 해방을 쟁취하는 선언문이어야 한다. 이러한 결연한 태도가 있어야만 우리 민족의 앞날에 소망이 깃들 수가 있을 것이다.